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해 정토사회 구현을

'전북불교시민연대' 창립총회 열고 첫발...십사일반 운동 전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불교시민사회운동을 이끌어 갈 전북불교시민연대(공동대표 박인순 김진병 오종근 유지원)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전북불교시민연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정토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12월 18일 전주 현대해상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대표 법일 스님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전북불교시민연대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창립 배경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전북지역에서 불교는 종교가 갖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중생의 아픔을 도의시하거나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반성한다"며 "불교계가 양자상 사회 변화

를 적응하고 선도하며, 현재적 현안에 대한 연대·단결·협력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북불교시민연대는 "개인의 수행에 머무르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배우고, 참여하며 실천해야 한다. 기존 우리 사회의 대안마련 노력들에 불법의 지혜를 빌어, 모든 것이 함께 연관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본래 모습, 바로 생명·평화의 정토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공생공존의 더불어 함께 사는 생명·평화 공동체운동 전개 ▷전북불교의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한 참여실천적인 포교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불교의 사회역량 육성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와 교계 현안에 대한 연대사업 수행 등을 활동목표로 결의했다.

또,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하루 100원의 십사일반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포교 활성화를 위해 시대정신에 맞는 전법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 1인 1법회 동참하기, 사회역량 강화 운동, 불교 NGO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개발 등을 구



전북불교시민연대는 12월 18일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종교간 대화와 협력, 종교편향 및 그릇된 종교 활동 대응, 교계 안팎의 주요현안에 지역불교계의 공동협업 및 대응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전북불교시민연대를 이끌어 갈 임원들이 선출됐다. 공동대표에는 박인순(주부클럽 전북지회장, 화엄불교대학15기 회장), 김진병(원광대교수, 전북불교대학 교무처장), 오종근(호원

대학교, 우리는선우-전전클럽 회장), 유지원(준비위원장, 전 대불련중앙지도위원장) 등이 내정됐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도 상임고문으로 활동한다.

박인순 공동대표는 "불교계 NGO로서 역할 모색은 물론, 전문적인 불교활동가를 배출해 내는 창구로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토사회를 이루어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사암연, "깨달음의 등불 켜자"

성도재일기념·제21대 회장 취임

"스님과 스님, 스님과 불자, 불자와 불자들이 단합해 불교의 힘을 길러, 하나 될 수 있는 광주 불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광주 불교 사암연합회는 성도재일기념 대법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당선된 혜향 스님의 취임식을 12월 22일 광주광역시 청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혜향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 발전을 위해 스님과 불자들이 스스로 쇄신할 수 있도록 변화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스님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며, 여기에 불자들의 의식 변화가 더해지면 불교는 활짝 핀 연꽃처럼 지역사회에 희망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광주불교를 위해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켜고,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지역사회, 행복한 불자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날 취임행사를 겸한 성도재일기념에는 조계종 원로위원 안도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해 강운태 광주광역시 시장,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도 스님은 성도재일기념법문에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 성도하신 의미와 가정과 사회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산불교문인協, 실상문학상 시상

수필가 박희선 본상 수상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혜종)는 12월 2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4회를 맞이하는 실상문학상은 본상에는 수필가 박희선, 작가상에는 시조시인 청학 스님, 시인 최재영, 시인 조현호가 선정됐다. 시부문 신인상에는 김종화, 김대근, 선휘 스님이 각각 선정됐다.

실상문학상 이사장인 혜종 스님은 기념사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학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문학작품이야말로



혜종 스님이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하나의 훌륭한 포교사"라며 문학가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재가불교 발전 위해 묵묵히 걸어온 20년

광주불교교육원 개원 기념 행사

1990년대 광주재가불교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동문의 밤 행사를 열었다.

12월 15일 광주불교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혜향 스님, 대각사 주지 도산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문민정사 주지 법선 스님을 비롯한 이순규 원장, 성춘경 前 옥과박물관 관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아나바다 장터'

광주 선덕사, 1000여 물품팔아 기금 조성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광주도량으로 다시 태어난 선덕사가 주민들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를 12월 18일 두암 타운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나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도들이 후원한 의류, 해산물, 생필품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신도들이 108일간 모아 후원한 1000여점의 물품은 1개당 1000원에 판매돼 지역 나눔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된다. 또한 이날 특별행사로 도법 스님의 저서 사인회도 열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자원봉사로 참여한 김경숙(49)불자는 "물품후원을 받아 신도들이 일일이 세탁과 다림질을 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물건을 제공할 수 있어 다행이고, 그 기금



이 지역공동체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덕사는 9월 3일 주지 행법 스님이 실상사 도법 스님에게 사찰경영을 이양하면서 새물결 출발했다. 또한 '선덕사가 만들어가는 108일간의 생명평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매일 금강경 독송과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100대 서원 절명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저소득가구에 '자비의 연탄' 배달

전주 참좋은우리절 저소득 가구에 연탄 2000장 전달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지역 내 저소득가구에 연탄 2000장을 12월 18일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연탄 배달은 전주 행복한가게(대표 김남규)와 신도 50여 명이 직접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회일 스님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자비를 실천 하는 것이 곧 부처님 법으로 사는 것이다. 앞으로도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일 스님은 전북지역의 외국유학생들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스님은 내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캄보디아 유학생, 지역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송년의 밤

광주전남지역 신도회를 대표하는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가 201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했다. 12월 11일 프라다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1년간 신도회 활동

과 성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용현 회장은 "올바른 불교의 이해를 통해 대중을 위해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암사,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부산 성암사(주지 응현)는 12월 10~11일 '자비의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성암사는 김장김치와 연탄 및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동절기를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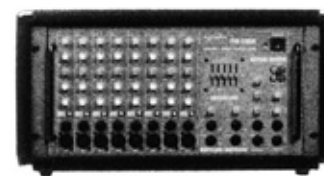
누기를 실천했다. 한편, 성암사는 7월 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상'을 개소해 매주 월·수·금 오전 11시 30분 300여 명의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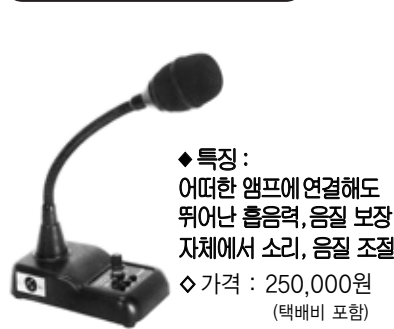
스테레오 앰프 300AN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135,000원(일반형)
◇가격: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